

전기계 소식 / 국내

'96 여름철 수급안정 대책

통신부, 최대전력수요 3326만kW 전망

- 1. '95 여름철 수급동향 및 금년 전망
 - '95 여름철 최대전력수요는 '94 최대 수요 2670만kW보다 약 318만kW(11.9%) 증가한 2988만kW이었으며, 공급능력은 3197만kW로서 공급예비율은 7.0%를 유지
 - 금년에도 7% 수준의 높은 경제성장이 전망되고,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에어컨 보급도 확산되고 있어
 - 최대전력수요는 '95년에 비해 약 338만kW(11.3%) 증가한 3326만kW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이상고온 발생시는 3426만kW 내외로 전망
 - 공급능력은 '95년에 비해 약 255만kW(8.0%) 증가한 3452만kW로서, 공급예비율이 3.8%까지 하락되어 안정적인 전력수급에 어려움이 예상
- 2. '96 여름철 수급안정 대책
 - 가. 공급능력의 확충
 - 장기전력수급계획에 따라 한국전력에서 건설중인 발전소 9기(22만kW) 외에 민간부문에서 긴급발전소 1기(30만kW)를 추가 건설하여 이를 여름철 이전에 조기 준공
 - 한전 : 울산복합화력 등 9기
 - 민간 : 한화화력 1기
 - 최대수요 발생기간(7.10~8.20)중에 전 발전소 가동이 가능하도록 발전소 정비·보수계획 등을 조정함으로써 '95 공급능력 3197만kW보다 285만kW가 증가한 3482만kW의 공급능력을 확보할 계획

- 이와 함께 정전발생 등 전기공급중단시에 대비하여 공공기관과 업계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비상발전기를 가동하여 발전수요를 일부 대체하는 방안도 강구
 - 500kW 이상 발전기 시설용량 : 254만kW
- 나. 수요관리 강화
 - 이러한 공급능력 확충과 함께 최대수요 절감을 유도하기 위하여
 - 전기다소비 업체 등에서 여름철에 집단휴가를 실시하거나 공장보수를 할 경우와
 - 대형빌딩 등에서 하절기 낮시간대에 에어컨 가동시간을 단축하거나, 불필요한 전기사용을 억제할 경우 전기요금 할인혜 주는 제도를 확대 실시
 - 이와 함께, 매분마다 전기사용량이 자동적으로 표시되는 전자식 전력량계보급도 확대하여 전기다소비 업체 등이 자율적으로 전기를 절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 ('95) 5천kW 이상 수용가(1,080호) →1천kW 이상 수용가(6,397호)
 - 이와 같이 전기요금 할인혜택부여 등을 통해 자율절전을 유도하는 제도 실시와 함께 전기대체냉방기와 고효율 조명기기 보급확대에도 주력하여 약 70만kW의 최대수요를 절감해 나갈 계획
 - 가스냉방, 빙축열 등 전기대체 냉방기 설치시 용자지원을 확대

- 용자지원금 : ('95) 15억원 → ('96) 20억원
 - 절전효과가 뛰어난 형광등과 안정기 등을 일정규모 이상 설치할 경우 장려금을 지원하고,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시범 보급사업도 적극 실시할 계획
- 장려금지원내용
 - 전자식안정기 : 2등용 7천원/개, 1등용 3.5천원/개
 - 전구형형광등 : 3.2천원/개
- 이와 함께 산업체, 건물 등에 대한 전기사용진단을 대폭 확대하여 시설개체 등을 통한 전기절약을 적극 유도
 - 전기사용진단 : ('95) 95개소 → ('96) 280개소
- 장기적인 차원에서 수요관리업무 기반정착과 전력회사 등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금년부터 한국전력을 수요관리투자기관으로 지정하여 수요관리사업에 440억원을 투자할 계획
- 다. 고장방지
 - 여름철 최대수요 발생기간 동안에 발전설비 고장으로 인해 전력공급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발전설비를 사전에 철저히 점검해 나갈 계획
 - 노후설비 개체와 함께, 특히 고장 발생이 예상되는 기기와 부품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예비물량을 확보하는 등 부품비축과 정비체제를 개선
 - 인적실수로 인한 고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문가 양성 시스템의

전기계 소식 / 국내

도입 등 교육훈련의 강화와 함께, 유공직원에 대한 사기진작제도도 적극 실시

○이와 함께, 송·변·배전시설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설비점검 등도 강화하여 광역정전 예방에도 주력

-시설확충을 위한 설비 신·증설 등 투자확대

·(95) 1조 179억원→
(96) 1조 4,624억원

라. 절전홍보 효과의 극대화 도모

○통상산업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을 중심으로 전력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절전홍보대책기구』를 운영

○실질적인 절전유도를 위한 홍보논리와 함께 가정용, 산업용 등 수요대상별로 절전홍보모델을 개발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에 주력하여 합리적인 전기사용을 유도

마. 대책수립후 수급전망

○ 이와 같은 대책의 착실한 추진으로 충분하지는 않지만 7% 수준의 공급 예비율을 확보하여 전력수급안정에 만전을 기할 계획

-이상고온 발생시에도 5% 수준의 공급예비율 확보

○아울러 기업, 가정 등에서도 전기절약의 적극 실천 등을 통하여 정부시책에 협조하여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당부 드림

안전점검 대책회의 개최

통신부, 안전관리 강화

통상산업부는 지난 2월 28일 한전, 가스공사,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포항제철 등 27개 안전관리기관의 대표와 민간전문가 및 국장급 이상 간부 등 4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2차 안전점검대책 회의를 개최하였다.

통상산업부는 지난 설날 연휴기간

동안 사고예방을 위하여 국장급 이상 간부와 상하기관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시설의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점검한 바 있으며, 대통령해외순방 기간중에도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상황근무와 특별점검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지금까지

지 발생한 주요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대책을 차질없이 집행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정부의 기본임을 충실히 하기로 다짐하였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95년도 가스·전기·광산분야의 사고상황을 분석하고 방지대책에 대한 검토도 있었다.

韓電, 中企 기술지원 문호 대폭 개방

제조업 專業率규제 삭제, 개발지원 신청범위 확대

한전 중소기업기술지원사업의 문호가 대폭적으로 개방됐다.

지난 3월 9일 한전에 따르면 올해 기술개발자금지원 대상업체선정기준을 크게 완화하여 제조업전업을 규제를 삭제, 어떤 종류의 업체든 간에 전기관련 기술개발을 하고자 하는 업체에게는 한전에 출입업체로 등록만 하면 신청이 가능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중소기업본법

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한전에 제조업으로 등록된 출입업체이거나 ▲전기공사업체, 발전설비정비업체이면 누구나 한전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한전은 이와 함께 ISO 인증획득도 최고 3천만원까지 지원키로 하고 한전에 남품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으로 전력설비신뢰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전력용 기자재제조업체인 경우 ISO인증획득

시 각종 비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ISO 9000시리즈 인증획득에 필요한 기술지도비용 및 품질감사, 인증획득추진요원 양성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데 ISO인증획득비용의 75% 이내에서 1개 업체당 3천만원 미만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96년 2월부터 '97년 2월 31일까지 총 30억원이 책정됐다.

한편 한전중소기업기술 지원사업은

전기계 소식 / 국내

지난 '93년도에 착수, ▲한전 등록업체 중 납품실적 5년 이상인 업체로서 최근 2년간 제조업전업률이 50% 이상인 업체로서 최근 2년간 한전납품비율이 25% 이상인 업체로 제한했으나, '94년도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한전에 제조업으로 등록된 출

입업체로서 ▲최근 2년간 제조업전업률이 50% 이상인 업체로 납품실적규제와 납품비율 규제를 삭제했고 이어 '95년도에는 전기공사업체, 발전설비정비업체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올해는 제조업 전업률규제를 삭제함으로써 3천여개 업체 정도가 신청대상이 되도록 대폭 문

호를 개방한 것이다.

이제까지 한전 중소기업기술지원사업의 지원규모는 '93년도에 132억원 '94년도에 254억원 '95년도에 304억원 '96년도에는 245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97년도에 185억원 지원계획이므로 '97년까지 총1120억원이 지원된다.

에너지 수급 동향 및 소비절약 대책회의

수요관리 강화방안 등 논의

금년도 1/4분기 에너지절약 대책회의가 한전 등 에너지 관련기업 및 유관기관 전문가, 소비자단체 대표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3월 7일 에너지관리공단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통산부 김태곤 자원정책실장 주재로 열린 대책회의에서 각 참석자들은 단기전력 수급과 발전소 확충부담을 경감키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수요관리사업을 보다 심도있게 추진하는 것이 긴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들은 또 단순전달식 에너지절약 홍보를 지양하고 고효율 조명기기 보급 실천프로그램인 녹색조명운동과 같은 소비자가 직접 참여하는 소비자참여형 절약홍보사업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함에 의견을 모았다. 절약시책의 효율적인 지방확산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도의 체제가 구축,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지배적인 의견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95년도 에너지절약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96년도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의 효율적 추진방안을 중점 논의한데 이어 심수섭에너지관리공단이사 「산업체 에너지관리진단 결과」를 발표했다.

심수섭이사는 「80년 이후 '95년까지 총 8,248개 업체를 대상으로 총 1억 370만 5천TOE의 절감효과를 보였다」며 「전체 에너지소비량의 53.4%를 점유하고 있는 산업부문의 에너지이용효율 제고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配電機資材 납품검사 差等化

韓電, 변압기·COS·가스개폐기 등 4개 품목

韓電 배전기자재 납품검사가 3월부터 품질수준별로 차등화 실시된다.

특히 성능확인시험 불합격 일단점지주상변압기에 대한 시험이 대폭 강화된다.

한전 서울자재관리사무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납품검사제도를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품질수준별 차등 납품검사 적용을 받

는 품목은 주상변압기류, COS, 가스절연부하개폐기, 전력용 피뢰기 등 4개 기자재이다.

이들 기자재 생산업체는 우수, 보통, 미흡업체로 분류, 우수업체(90점 이상)는 소내입고시험과 소량납품 파괴시험이 면제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반해 미흡업체(60점 미만)는 소내입고시험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

시험시료 증가와 수시특별지도 점검이 시행되며 보통업체는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을 받는다.

업체평가는 1백점 만점에 납품검사 불합격 건수가 30점, 하자 발생거수와 불만족 발생건수 및 성능확인 시험 결과가 각각 20점, ISO획득 여부가 10점 등 각항목별로 가중치를 적용, 이루어진다.

IAEA, 安全基準 개정에 착수

'97년 2월까지
개정작업을 완료

국제원자력기관(IAEA)은 원자로의 운전이나 방사선·폐기물관리, 핵물질수송 등에 관한 원자력안전기준의 개정작업에 착수하였다. 기준의 재검토는 지금까지도 주변상황의 변화에 따라 적의 실시하여 왔으나 이번 개정은 기존의 4개의 전문부회를 합친 안전기준위원회(브리크스 사무국장의 자문기관)를 새로 설치하여 각 분야간의 整合性에 보다더 배려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개정대상이 되는 항목과 작업의 우선순위는 각 전문부회에서 지난 2월말까지 압축하여 3월 중순의 위원회 첫회합에서 결정된다. 그후 내년 2월경까지에 개정작업을 실시할 예정으로 되어 있다.

안전기준개정에 관계되는 전문부회는 NUSSAC(원자로관계), RASSAC(방사선관계), WASSAC(폐기물관계), TRANSSAC(수송관계)의 4개 부회이다. 지난 1월 중순 이후 개정항목과 우선 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회합을 순차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위원회 개최 후에 본건화될 실제의 개정작업은 부회밀에 다시 복수의 전문가 그룹을 두어 실시하게 된다.

개정에 임해서 우선순위를 매기는 것은 안전기준의 양이 방대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원자로관계의 기준은 정부조직, 입지, 설계, 운전, 품질보증 등의 테마로 나뉘어져 있고 각각에 대하여 다수의 기준이 있다. 1년이 못되는 기간안에

개정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전회의 개정으로부터 장기간이 경과되어 실정의 개정으로부터 장기간이 경과되어 실정에 맞지 않는 것부터 우선적으로 작업을 추진시킬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

중래의 개정작업에서는 각 부회가 각기 별도로 작업을 하여왔다. 그러나 「원자로」와 「방사선」과 같이 복수분야에 걸친 항목에 대해서는 개정완료후의 내용에 모순이 생기는 경우가 있었다. 이 때문에 IAEA에서는 각부회의 개정내용에 총괄적인 검토를 가하여 整合性을 도모하는 위원회의 존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과학기술청관계자에 의하면 당초에는 NUSSAC를 격상시켜 개정실무와 함께 전부회의 개정내용을 검토하는 역할을 담당케 한다는 안도 있었으나 다른 부회에 참가하고 있는 국가의 반대의견이 강하여 이번 체제로 낙착되었다고 한다.

直流送電用變換器 최종시험 실시

미쓰비시電機 4월부터 長期課電

일본의 미쓰비시電機가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50만V급 직류송전용변환기(사이리스터밸브)의 실증시험이 올봄부터 최종단계에 들어가게 되었다. 伊丹제작소(兵庫縣尼崎市)내에 설치하고 있는 고전압 대용량의 실증시험설비로 4월부터 약 반년간에 걸쳐 장기과전시험을 실시, 최종적인 성능검증을 하려는 것이다. 송전로스가 적은 직류송전기술은 전력회사간의 광역연계가 넓어짐에 따라

앞으로 폭넓은 도입이 예견되고 있다. 동사는 직류송전기술을 중전기부문의 기등의 하나로 자리를 굳혀 中核機器가 될 대용량변환기의 실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직류송전은 전력회사간의 광역송전에 적합한 기간송전기술로서 초고압의 100만V(UHV)송전과 나란히 하는 차세대 송전기술이다.

이미 北海道와 本州를 잇는 北本연계선으로 직류송전이 실용화되어 있다. 또한 電源開發會社와 四國電力이 德島縣에 건설중인 橋灣화력발전소에서는 발생한 전력의 일부를 직류송전에 의하여 關西電力에 송전할 계획으로 있으며, 동계획에서는 송전용량을 50만V급으로 대용량화하는 것이 주요골자이다. 동계획을 2000년경에 실용화하기 위해 중전메이커 각사는 직류 송전기기의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다.

직류송전용변환기는 발전소에서 발생한 교류전원을 직류로 변환하는 기기이다. 미쓰비시電機는 이미 변환기에 탑재하는 光사이리스터素子の 개발을 완료하고 있다. 이 사이리스터는 6인치 사이즈로 8000V 3600A의 대용량을 실현하고 있다. 이와 병행하여 伊丹제작소내에 실규모의 변화기를 설치, 시험설비도 정비하여 작년부터 고전압하에서의 스위칭기술과 50만V급의 기중절연기술 등을 검증하는 각종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금년 4월부터는 직류 60만V의 전압을 걸어 놓는 장기과전시험에 들어간다.

정격전압은 50만V클래스이지만 시험에서는 보다 엄격한 조건에서 안정도를 검증한다. 기간은 약 반년간으로 종합적인 검증시험에 의하여 제품화를 위한 최종적인 성능체크를 하는 단계이다.

전기계 소식 / 국외

동사는 직류송전기기에 대하여 「금후 계획이 예견되는 국내의 광역연계에 대응함과 동시에 해외의 직류송전프로젝트에도 대응해 가고자 한다」(伊吹垣=伊丹제작소 전력송변전 프로젝트매니저)며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시험설비로서는 직류전원으로 90만V, 교류전원으로 50만V에 대응하고 있다. 투자액은 약 20억엔 정도이다. 장차 제품의 조립이나 출하전시험에 활용할 예정으로 있다.

ASEAN 최초의 原子力

인도네시아, 5월말에 타당성 조사 완료

동남아시아 諸國聯合(ASEAN) 최초의 원자력발전소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에서는 금년 5월말에 최종 실행가능성조사(피지빌리티·스터디)를 끝낼 계획이다. 그 결과에 따라 각 省廳의 대표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연내에라도 정부로서의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순조롭게 진행되면 금년말이나 내년초에 공개입찰이 시행되고 1998년에 착공, 2004년에 처음 1호기가 운전 개시하게 된다. 다만 정부부내에서도 원자력발전의 도입에 적극적인 인도네시아原子力廳(BATAN)과 「송전망 등 인프라의 정비를 우선하여야 할 것」이라는 인도네시아 전력(PLN)과의 사이에 의견대립이 있어 최종적으로는 수하르트대통령의 판단에 따르게 될 것 같다.

인도네시아의 원자력발전소의 입지 지점으로서의 자바섬 중부 무리아반도의

우중·레마하방지점이 최우려시되고 있으며, 함께 180만kW(90만kW×2기 또는 60만kW×3기)의 건설이 계획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이미 해외의 컨설턴트회사에 피지빌리티·스터디를 위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예비조사에서는 「무리아반도의 원자력발전소건설은 경제적·기술적으로도 실행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원자력발전의 도입에 대해서는 정부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인구(1억 9000만명)의 약 60%가 거주하는 자바섬은 에너지소비량이 전체의 80%를 점유, 전력수요도 연율 약 10%로 신장하고 있는데, 원자력발전소건설에 가장 적극적인 BATAN은 「2015년까지 자바섬만으로 3200만kW의 전원이 필요하게 된다」라고 시산, 「종래형의 전원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것은 이 가운데 2500만kW 정도로 나머지 760만kW분은 원자력발전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BATAN의 D·아하무사장은 「자바섬과 바리섬을 합친 전력수요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장래 2700만kW의 원자력 발전설비(7기에서 12기의 원자력발전소에 상당)가 필요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등 이 나라의 원자력발전개발의 급선봉이 되고 있다.

한편 PLN은 원자력발전의 도입에는 부정적이다. PLN이 염려하는 최대의 이유는 자금문제로, 「가령 앞으로 2700만kW의 원자력발전설비를 건설한다고 하면 최소한 약 170억 美달러라는 거액의 자금이 필요하며 발전코스트도 원자력은 석탄화력과 비교하여 탈유장치가 없이 50%, 탈유장치설치시라도 20%~

30% 증가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PLN으로서는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은 자금면, 인력면으로 보아 시기상조이다. 신규전원은 비교적 저코스트인 천연가스화력이나 석탄화력으로 대응하고 원자력발전개발에 거액의 투자를 하기보다는 송전망의 정비 등 인프라정비에 자금을 돌려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BATAN은 자금·인력문제에 대하여 외국이 건설자금을 공여하고 건설후에도 계속하여 발전소를 소유하여 賣電收入에 의하여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BOO(Built·Operate·Own) 방식을 취함으로써 대응할 생각이다.

BATAN으로서는 해외자본에 의하여 일본의 원자력발전과 같은 프론티어회사를 설립 발전소의 건설·운전은 물론 이에 따른 홍보(PA) 활동에서 디코미셔닝, 방사성폐기물(사용필 연료)의 최종 처분에 이르기까지 이 회사(외국측)맡길 생각인 것 같다.

또하나의 염려는 안전문제이다. 지난 2월17일에 인도네시아동부의 이리안자야를 매그니튜드 7.5의 지진이 내습하여 일본에까지 해일에 의한 영향이 있었던 것이 기억에 새롭지만 「필리핀海」, 「태평양」, 「유러시아」의 3개의 플레이트가 접하는 자바섬주변은 플레이트·텍트닉스이론에서 말하는 「액티브한 지역」으로 되어 있다. '89년 12월에는 무리아반도에서 50km의 지점을 진원으로 한 매그니튜드9의 지진이 발생하고 있으며 「인구밀도가 높은 자바섬에서 적절한 긴급시피난계획을 책정할 수 있겠는가」가 논의의 초점이 되고 있다.

입찰에 있어서는 현지보도(자카르타·포스트지 등)에 따르면 웨스팅하우스(WH)/미쓰비시東工業의 美日 컨소시엄,

전기계 소식 / 국외

캐나다원자력공사(AECL), 뉴클리어·파워·인터내셔널(NPI)사 등이 의향을 표시하고 있다.

5월말에라도 최종 피지빌리티·스터디 결과가 나오면 각 省廳의 대표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에서 검토에 들어가는데 PNL 이외에도 「이 단계에서 정부가 의지결정을 하는 것은 시기상조」(S·구스마트마자 인구·환경상)라는 의견이 정부부내에서도 뿌리깊어 최종적으로는 수하르트대통령의 판단에 의할 것으로 보인다.

수하르트대통령은 지금까지는 「원자력발전은 최종옵션」이라고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어 원자력발전소건설에 대한 명확한 의지를 표시하고 있지 않다. 인도네시아 최초의 원자력발전소건설 계획은 금년이 중대한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 같다.

中 機電2제품, 최대 수출품목으로 부상

**작년 438억\$ 넘어
섬유 앞질러**

중국의 지난해 電氣製品 수출이 처음으로 400억달러대를 돌파하면서 최대 수출품목으로 급부상한 가운데 중국에 진출해 있는 외자계기업의 電氣제품수출이 전체의 47%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수출용 기전제품을 제조하는 국영기업은 대폭 감소하고 있으나 외자계기업은 급증, 중국의 무역을 크게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중국관계 업계단체인 국제무역 촉진협회가 중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의

통계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95년의 기전제품 수출총액은 438억 5700만달러로 전년실적을 37.2%나 웃돌았는데 이 실적은 관세분류의 16류(기기·전기설비 등), 17류(차량·선박 등), 18류(광학기기·의료설비 등)의 합계 364억 9천만달러에 기타 항목에 포함된 기전제품 73억 9천만달러를 합산한 것이다.

그간 중국의 최대 수출품목이었던 섬유·의류 등의 방직품은 2위로 밀려났다. 중국의 수출총액에 접하는 비율도 '94년의 26.44%에서 29.4%로 확대됐다.

무역형태별로는 일반무역에 의한 수출이 124억 5900만달러로 전년에 비해 무려 40.55% 증가했는데 기전제품 수출에 접하는 비율은 28.4%였다. 가공무역방식에 의한 것은 306억 5천만달러로 34.62% 증가했으며 기전제품 수출에서 접하는 비율도 69.87%로 기전제품수출의 상당부분을 점하기에 이르렀는데 중국 전체무역에 대해서도 49.54%로 약 절반 정도를 차지했다.

이번에 밝혀진 기전제품 수출기업실태를 보면 작년중 기전제품 수출기업은 총 1만 9755개사였다. 이중 국영기업수는 7,193개사로 '94년에 비해 1,672개사 감소했다. 이와는 달리 외자계기업수는 1만 1838개사로 801개사가 증가했으며 이중 779개사가 100% 외자기업으로 기전제품을 취급하는 100% 외자기업도 전체 외자기업의 30.7%에 달하고 있다.

기전제품 수출총액 438억 5700만달러중 국영기업이 수출한 금액은 224억 8800만달러로 전체의 51.27%를 점하고는 있으나 '94년에 비하면 6.03%포인트나 줄었다. 반면 외자계기업의 수출은 206억 1800만달러로 47%를 점해

5.48%포인트 상승했다. 그 중에서도 100% 외자기업의 수출은 88억 2600만달러로 외자계기업 수출의 42.8%를 차지하고 있어 외자계 기전제품 제조기업에선 100% 외자형태의 비교적 대형기업의 현지생산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기전제품 수출 가운데 외자계기업의 비율이 50%대를 넘는 지역은 광둥·상해·요령·천진·북경·상동의 각 省·市이며 그중에서도 천진시는 80%라는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또 작년 8월 이후부터는 외자계기업의 수출이 국영기업의 실적을 웃돌았으며 달이 갈수록 이런 현상은 더욱 확대된 특징이다.

기업별 수출액을 보면 수출액이 1억달러대를 넘는 기업이 46개사(국영기업 21개사, 외자계기업 25개사)에 달해 '94년보다 25개사가 증가했다. 500만달러대를 넘는 기업수에서도 국영기업이 675개사인데 대외 외자계기업은 686개사로 외자계기업의 비율이 더욱 커지고 있다.

기업의 평균 수출액도 커지고 있다. '95년엔 222만 500달러로 '94년의 156만 500달러를 크게 웃돌았다. 또 국영기업의 평균치는 312만 5400달러('94년비 105만 8천달러 증가)였고 외자계기업은 120만 3600달러(90만 5600달러 증가), 100% 외자기업은 242만 8천달러였다.

중국은 최대수출품목으로 부상한 기전제품은 비교적 대형의 국영기업과 외자계기업이 뒷받침하고 있는데 수출의 확대는 동시에 원재료 수입의 확대도 이어져 급속히 팽창하는 중국의 무역을 지탱하고 있다.